

흐르다, 머물다, 별의 바다를 건너는 감정의 궤도

주안미술관 기획전 '별의 바다, 깨어난 숨'展...내달 12일까지

‘작업라운지’ 다섯 번째 기획...문승환·오혜성·최이안·한예원 참여
‘우주’ ‘바다’ ‘빛’ ‘생명’ 키워드, 존재의 감정 다양한 회화 언어로 탐색

광활한 우주와 고요한 바다를 배경으로, 존재의 감정과 내면의 궤도를 탐색하는 예술적 여정이 펼쳐진다.

주안미술관은 오는 9월12일까지 기획전 '별의 바다, 깨어난 숨'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연례 프로젝트 '작업라운지'의 다섯 번째 기획으로, 문승환·오혜성·최이안·한예원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우주’, ‘바다’, ‘빛’,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는 인간 존재의 감정과 본질을 다양한 회화 언어로 탐색한다.

아크릴, 오일스틱, 혼합재료 등 작가 고유의 매체를 활용해 작업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하나의 주제를 풀어낸다.

특히 이번 전시는 회화뿐 아니라 작가의 창작 과정 일부도 함께 공개돼, 예술이 탄생하는 경로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감정의 흐름과 내면의 여정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도록 명상적 분위기로 연출됐다.



문승환작 '파도 1'

작가들은 저마다의 내면에서 출발한 감정의 언어를 화면 위에 펼쳐며 각자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풍경을 제시한다.



오혜성작 'Fantastique-anguish-07'

문승환 작가는 일상의 바다 풍경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기록한다.

같은 풍경도 달라 보이게 만드는 감정의 미묘한 떨림을 포착하며, 화면 위에 감정의 흔적을 조용히 쌓아간다.

그의 작업은 일상의 순간을 통해 감정을 되짚는 회화적 일기와 같다.

오혜성은 자신의 이름에서 출발한 '혜성'의 서사에 현대인의 번뇌와 상실을 겹쳐, 자아의 회복 여정을 그려낸다.

'일곱 단계의 번뇌'를 상징화한 회화 속에는 별빛을 잃은 존재가 다시 자신의 궤도를 찾아가



최이안작 'Oracle'

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회화는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최이안은 자전적 세계 'i-AN'을 배경으로, 기억과 감각의 잔상을 기록한다.

안개처럼 흐릿한 색채, 별과 물방울 같은 형상들은 잊힌 감정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며, 관람자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



한예원작 '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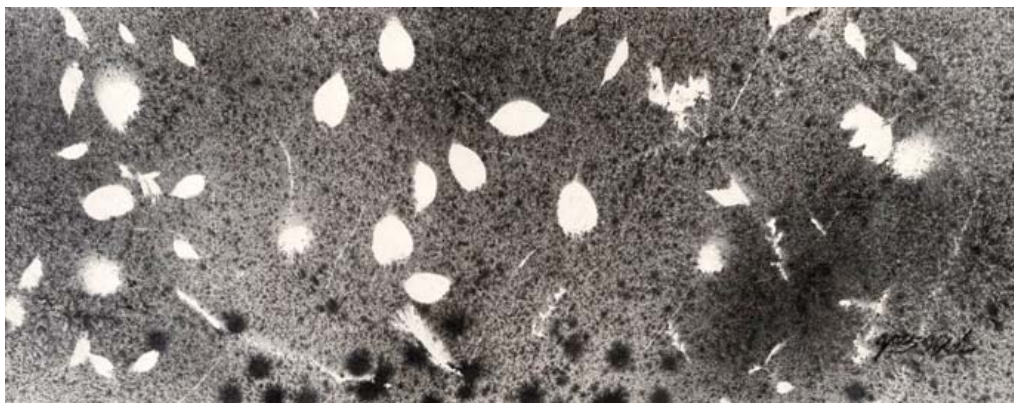
간을 제공한다.

한예원은 불안을 직면하고, 그 감정과 공존하는 여정을 회화로 풀어낸다.

'등불' 시리즈는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인물을 통해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공생' 시리즈는 어둠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존재들을 통해 삶의 연대를 시각화한다. 불안과 고요,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며 꺼지지 않는 내면의 등불을 그려낸다.

이처럼 전시는 광활하고 섬세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 숨 쉬는 존재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한편 전시 관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안미술관 인스타그램(@juan_artmuse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심과 숨’ 김태호 ‘수목 산책’展...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전시갤러리는 10월 "오는 29일까지 김태호 작가의 개인전 '수목 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태호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먹의 질과 열은 농담을 활용해 음영과 양감을 표현한 한국화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

하는 '국도 1호선 미술전'을 비롯해 여러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목포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태호 작가는 "물질과 속도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수목이 주는 여유와 사유의 공간에서 잠시나마 느리게 걸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뮤지컬·영화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박열'

ACC, 광복80주년 기념 15-16일 '뮤지컬 박열', '영화 박열' 무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과 신념을 조명하는 '뮤지컬 박열'과 '영화 박열'을 연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과 영화는 공연 예술과 영상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문화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뮤지컬 박열'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3시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 내 조선인 학살 사건과 일왕 암살 음모를 둘러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일제의 조작과 억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두 사람의 저항 정신을 전통예술과 결합해 예술적으로 재구성

했으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한다.

다음날인 오는 16일 오후 2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영화 박열(감독 이준익, 2017)'이 상영된다. 영화는 박열의 법정 투쟁을 실제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긴장감 있게 풀어내 개봉 당시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배우 이제훈, 최희서가 출연한다.

ACC는 이번 공연과 영화를 통해 독립운동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하고 국민의 자긍심과 역사 인식을 높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 다른 두 매체를 통해 '박열'이라는 인물을 다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관객에게 깊은 몰입과 감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뮤지컬 박열』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역사적



'뮤지컬 박열'공연 모습

진실과 가치를 예술로 전달하는 작품"이라면서 "공연과 영화를 통해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박열의 저항정신을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과 영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CMYK